

불어 '대칭' 명사의 통사·의미론적 특성 연구*

— '대칭' 명사의 대상부류 구축 —

이 성 헌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 머리말

이 글은 불어 '대칭명사(nom symétrique)'의 대상부류(classes d'objets)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이 명사들의 통사·의미 속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칭명사는 guerre, accrochage, différend, désaccord, dispute, altercation처럼 둘 이상의 주체가 동시에 연루되는 행위나 상태, 사건 등의 사행(procès)들을 지칭하는 술어명사(nom prédi-catif)들로서 자신이 표상하는 보다 세밀한 의미

* 본 연구는 2003년도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비 지원 사업으로 수행되었음.
이 논문을 읽고 도움 말씀을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주 제 어: 대칭명사, 대상부류, 적정술어, 대칭행위, 물리적 대칭행위, 언술 대칭행위, 추상적 대칭행위, 대칭상태, 합치적 대칭상태, 대치적 대칭상태, 관계
nom symétrique, classes d'objets, opérateur approprié, action symétrique, action symétrique physique, action symétrique de parole, action symétrique abstraite, état symétrique, état symétrique convergent, état symétrique divergent, relation

에 따라 다양한 통사행태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통사·의미 속성을 밝히려 면 이들에 대한 의미유형별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대상부류란 어휘의 결합관계라는 통사적 근거에 의해 설정되는 의미적으로 균질한 어휘들의 부류 체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 구축과정 자체가 관련 어휘들의 통사·의미 속성들을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대칭명사들의 통사·의미 속성을 기술하기 위해 이들 명사의 대상부류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먼저 술어명사 기술의 쟁점 및 이와 관련한 대칭명사들의 속성을 살펴 볼 것이다. 그런 다음, 대상부류 이론을 개관함으로써, 대칭명사의 통사·의미 속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대상부류 구축이 필요함을 보이고 더불어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칭명사 대상부류의 구축과정과 그 결과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술어명사 기술의 쟁점

2.1 술어명사와 기능동사

Z.-S. Harris의 변형문법과 이를 잇는 M. Gross의 어휘문법(*lexique-grammaire*)에 따르면, 최소의 의미단위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고, 이때 (기본)문장은 하나의 술어와 그것이 선택하는 논항들로 구성된다.¹⁾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흔히 추상명사로 분류되던 대부분의 명사들은 자신에 고유한 논항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해서 동사나 형용사처럼 술어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같은 명사를 술어명사(*nom prédicatif*)라고 부른다. 다음의 명사 *désir*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1) Harris, Z.-S. (1976), Gross, M. (1981), Gross, G. & Vivès, R. (1986) 등을 참조.

- (1) a. Luc désire voyager.
 b. Luc est désireux de voyager.
 c. Luc a le désir de voyager.
- (2) a. désirer (Luc, voyager)
 b. désireux (Luc, voyager)
 c. désir (Luc, voyager)

위의 예 (1)과 (2)는 추상명사 *désir*가 동사 *désirer*나 형용사 *désireux*와 마찬가지로, 주어 논항으로 인물명사 *Luc*을, 목적어 논항으로 문장성분 *voyager*를 취하는 술어임을 보여준다. 또한, 동일한 논항구조를 갖는 이들 세 어휘요소가 자신의 문법범주에 따라 현동화(actualisation)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즉, 동사 *désirer*가 그 자신의 어미변화에 의해 시간 틀에 등재되고, 실제 문장 상에 나타나게 되는 데 반해, 형용사 *désireux*와 명사 *désir*는 각각 동사 *être*, *avoir*와 결합함으로써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동사 외의 술어들을 현동화하는 기능을 갖는 동사들을 기능동사(*verbe support*)라고 부른다.

2.2. 술어명사와 기능동사의 다양한 결합 양상

술어명사가 자신에 고유한 논항을 선택하고, 기본문장 내에서 기능동사와 결합하여 현동화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은 이들이 논항명사들과는 구분, 기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술어형용사나 술어동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선택하는 논항구조 — 즉 논항의 수와 성격 — 와 관련이 있는 분포특성과 변형특성들이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 이때, 각 술어명사가 결합할 수 있는 기능동사들에 대한 정보들을 명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2) 이러한 입장이 바로 *lexique-grammaire* 이론의 근간이다. cf. Gross, M. (1975, 1981, 1990b)

술어명사의 현동화를 담당하는 기능동사들이 아주 다양하고, 이들 두 요소간의 결합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2.2.1. 기능동사의 다양성

술어 형용사들 모두가 기능동사 être에 의해 현동화되는 반면, 술어명사들은 다양한 기능동사들에 의해 현동화된다. 사실, 불어 어휘문법의 구축작업을 통해 밝혀진 기능동사의 유형만도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가) 기본기능동사(supports de base)

이 유형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술어명사들과 결합하는 faire, donner, avoir, prendre, être Prép 등의 기능동사들이 포함된다.³⁾ 이 동사들은 고유한 어휘의미가 없이 — 또는 어휘의미가 비워진 상태로 — 술어명사의 현동화라고 하는 문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능동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석된다.⁴⁾

3) 각 기능동사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Faire: Giry-Schneider, J. (1987), donner: Gross, G. (1989), avoir: Labelle, J. (1974), Meunier, A. (1981), Vivès, R. (1983), prendre Vivès R. (1983, 1984), être Prép: Danlos, L. (1980).

4) 기능동사가 자신에 고유한 어휘의미가 없거나(vide) 비워진(vidé) 것으로 분석되는 근거로는 무엇보다도 기능동사의 삭제 가능성 또는 명사화 불가능을 꼽을 수가 있다. 즉, 기능동사구문(또는 술어명사구문)을 명사구로 변형시킬 때, 그 중심(tête)은 술어명사가 되고 기능동사는 관계절화 변형을 거쳐 삭제될 수가 있다.

Luc a fait un voyage

⇒ Le voyage [que Luc a fait]

⇒ Le voyage de Luc

이에 반해, 자신의 고유한 어휘의미를 가진 일반술어동사들은, 동일한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명사구에 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Luc a raconté une histoire

⇒ L'histoire [qui est] racontée par Luc

- (3) a. Marie a fait une sieste.
- b. Paul a donné une gifle à Luc.
- c. Pierre a du courage.
- d. Luc a pris la décision de partir à l'étranger.
- e. Cette voiture est à l'arrêt.
- f. Pierre est d'une patience angélique.
- g. Luc est en voyage.

(나) 어휘 변이형(variantes lexicales)

이 유형은 commettre (une erreur), effectuer (un trajet), disputer (un match), dresser (un bilan), caresser (un espoir), réaliser (un achat) 등의 동사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기본기능동사들에 비해 볼 때, 자신의 어휘의미를 비교적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논항의 선택에 관여하지 못하며 술어명사에 대한 현동화 기능만을 담당한다. 따라서 어휘 변이형들이 큰 의미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기본기능동사들을 대신할 수 있다.

- (4) a. Paul (fait + commet) une erreur.
- b. Max (fait + dresse) un bilan.
- c. Luc a (donné + prodigué) un conseil à Paul.
- d. Luc a (donné + accordé) une amnistie à Max.⁵⁾

(다) 상 변이형(variantes aspectuelles)

변이형들 중에서는 기본기능동사를 대신하여 술어명사를 현동화할 때 상(aspect)과 관련한 의미를 추가하는 것들이 있다. Lancer (un combat), entamer (une négociation), démarrer (une campagne), engager (un procès), ouvrir (une

⇒ ?? L'histoire de Luc

5) Faire와 donner의 어휘변이형에 대해서는 각각 Giry-Schneider, J. (1987)와 Gross, G. (1989)를 참조.

enquête), aborder (un problème), prendre (froid) 등은 기동상의 의미를 추가하고, mener (une bataille), poursuivre (le mouvement de grève), garder (le courage), rester (dans le coma) 등은 지속상을 표상한다. 한편, perdre (le courage), sortir (du coma) 등은 사행의 종결, 즉 종결상을 표상한다. 이 같은 동사들을 상 변이형 기능동사라고 부른다. 이들은 시상보조동사 — commencer à, continuer à, finir de — 와 기본기능동사의 결합체를 대체하는 특징을 갖는다.

- (5) a. Luc a **entamé** la description de son voyage. (=: commencer à faire)
- b. Luc a **poursuit** la description de son voyage. (=: continuer à faire)
- c. Luc a **terminé** la description de son voyage. (=: finir de faire)

(라) 사건기능동사(verbs supports d'occurrence)

상기 세 유형의 기능동사들이 (전통적인 관점의)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술어명사를 현동화하는 것들이라면, 사건기능동사는 주어자리에 나타나는 술어명사를 현동화하는 동사들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avoir lieu, se passer, se produire, survenir, intervenir, surgir, arriver, apparaître, se tenir, se dérouler 등이 이에 해당된다.

- (6) a. Un fort séisme a eu lieu en Turquie
- b. Un carambolage s'est produit sur le périphérique nord
- c. Une tempête est survenue dans la région francilienne
- d. Une crise économique a surgi lors de la flambée du cours du pétrole
- e. Une réunion de crise s'est tenue à Matignon
- f. La cérémonie s'est déroulée dans un climat de forte compassion

사건기능동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세 유형의 기능동사 만큼 체계적인 연구가 행해지지 못하고, 그 존재에 대한 간헐적인 언급⁶⁾만이 있어왔으나 S.-H.

Lee(2001)에 의해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목록이 구축되었다. Il y a나 il se produit, il se passe 등과 대체될 수 있는 상기 동사들은 문장 내에 사건(événement) 주어 역할을 도입하고, 이를 사건 발생의 환경 — 즉, 시간, 장소, 원인 등 — 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기능동사들은 verbes supports événementiels, verbe supports d'adverbe, supports d'existence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⁷⁾

2.2.2. 술어명사와 기능동사 결합의 복잡성

이상에서 보듯이 술어명사를 현동화하는 기능동사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동사의 수도 상당히 많다. 뿐만 아니라, 이 동사들과 술어명사와의 결합관계는 대단히 불규칙하여 이를 정확히 기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간 술어명사 구문 — 또는 기능동사 구문 — 에 대한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⁸⁾ 예를 들어, 술어명사 communication에 대해서는 두 기능동사 donner와 faire가 서로 대체될 수 있는데 반해, 다른 명사들, 예를 들어 autorisation이나 menace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 (7) a. Luc a (donné + fait) une communication à ce colloque.
 b. Luc a (donné + *fait) l'autorisation à Max de partir.
 c. Luc a (*donné + fait) des menaces à Max. (Gross, G. 1989: 176)

이 같은 현상은 기능동사의 변이형들에서도 관찰된다. 사실, 어휘 변이형인

6) Gross, M. (1990: 108), Guillet, A. et Leclère, C. (1992: 15), Giry-Schneider, J. (1987: 41), Gross, G. (1989: 242).

7) 줄고에서 사용된 '사건기능동사(verbes supports d'occurrence)'라는 명칭은 Gross, M. (1990a)을 따른 것이다. 그 외의 명칭들과 정의에 대해서는 Giry-Schneider, J. (1987, 1988), Guillet, A. et Leclère, C. (1992), Gross, G. (1989)을 참조할 것.

8) 이 문제점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Lee, S.-H. (2001)을 참조.

dresser나 commettre는 모두 faire를 대신하여 술어명사를 현동화할 수 있지만, 이들이 결합하는 술어명사들은 서로 다르다.

- (8) a. Max a (fait + dressé + *commis) un bilan.
- b. Max a (fait + *dressé + commis) une erreur.

이는 faire를 대체할 때 기동상의 의미를 추가하는 entamer, démarrer, engager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9) a. Max a (entamé + démarré + engagé) un procès contre son voisin.
- b. Max a (*entamé + *démarré + engagé) la guerre contre Luc.

이러한 이유로, 한 술어명사가 결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동사들을 명시적으로 표상하고, 이들 두 요소간의 결합관계를 밝히는 것이 술어명사 기술에 있어서 쟁점이 된다. 이는 언어의 전산처리 또는 언어 간의 자동번역을 염두에 둔 언어기술에서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술어명사로 구성되는 문장의 인식이나 생성 시에 — 특히 후자의 경우 — 해당 술어에 적절한 기능동사들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⁹⁾

3. 대칭명사

3.1. 대칭명사와 그 통사행태의 이질성

술어명사의 기술과 관련하여 상기한 문제점들은 대칭명사의 기술에서도 똑

9) 이러한 관점에서 술어명사의 결합정보를 기술하고 표상하는 문제는 Hong, C.-S. & Lee, S.-H. (2003)을, 기능동사에 관한 기술과 표상문제는 이성현(2004)을 참조.

같이 주요 쟁점이 된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대칭명사는 *guerre*, *accrochage*, *différend*, *désaccord*, *dispute*, *altercation*처럼 둘 이상의 주체가 동시에 연루되는 행위나 상태, 사건 등의 사행(*procès*)들을 지칭하는 술어명사(*nom prädicatif*)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속성으로 인해, 대칭명사들은 두 개의 논항을 필수적으로 취하고 단문구성 시에는 기능동사와 결합하는 통사 행태를 보인다. 즉, 이들은 모두가 “il y a Npréd¹⁰⁾ A et B”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 (10) a. Il y a eu une guerre entre les Etats-Unis et l'Irak.
 b. Il y a eu un sérieux différend entre le gouvernement et le Parlement.
 c. Il y a eu une vive altercation entre la majorité et l'opposition.

또한, 이들 대칭명사들은 상기 구문과 변형관계를 맺는 “A Vsup¹¹⁾ Npréd avec B” 또는 “B Vsup Npréd avec A” 구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

- (11) a. Les Etats-Unis ont fait la guerre avec l'Irak.
 b. Le gouvernement a eu un sérieux différend avec le Parlement.
 c. La majorité a eu une vive altercation avec l'opposition.
- (12) a. L'Irak a fait la guerre avec les Etats-Unis.
 b. Le Parlement a eu un sérieux différend avec le gouvernement.
 c. L'opposition a eu une vive altercation avec la majorité.

이렇게, 대칭명사가 지칭하는 사행(*procès*)에는 “둘 이상의 주체가 연루”된다는 점에서 이들 명사들은 문장 구성 시에 두 개의 논항과 함께 나타나고, 또한 이 두 주체가 “동시에” 연루된다는 점에서 두 논항의 위치변화는 문장의

10) Npréd은 술어명사(*nom prädicatif*)를 의미함.

11) Vsup는 기능동사(*verbe support*)를 의미함.

미에 어떤 변화도 야기하지 않는다. 사실, (10)–(12)의 대칭명사들은 “A et B Vsup Nprés” 구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

- (13) a. Les Etats-Unis et l'Irak ont fait la guerre.
- b. Le gouvernement et le Parlement a eu un sérieux différend.
- c. La majorité et l'opposition a eu une vive altercation.

이러한 통사·의미 속성을 고려할 때, 대칭명사는 다음의 구문에 나타나는 술어명사로 정의할 수 있다.

(14) 대칭명사의 기본 문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i>il y a</i> Nprés entre A et B (II) A Vsup Nprés avec B (III) B Vsup Nprés avec A (IV) A et B Vsup Nprés |
|---|

그런데,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대칭명사의 통사·의미적 속성들을 기술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14)의 (II)–(IV)에 나타날 수 있는 기능동사(Vsup)는 이들과 결합하는 술어명사(Nprés)의 자리에 나타나는 대칭명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11)–(13)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칭명사 guerre는 기능동사 faire와 결합하는 반면, différend과 altercation은 avoir와 결합한다.

이러한 결합차이는 *il y a*를 대신하는 사건기능동사와의 결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서(p. 4) 우리는 사건기능동사의 예로 avoir lieu, se passer, se produire, survenir, intervenir, surgir, arriver, apparaître, se tenir, se dérouler 등을 들었다. 이 동사들은 모두가 대표적 사건기능동사인 *il y a*와 대체 가능한 것들

이다.

- (15) a. Un séisme s'est produit au Japon.
 b. Il y a eu un séisme au Japon.

- (16) a. Un concert s'est tenu au centre culturel.
 b. Il y a eu un concert au centre culturel.

하지만, *il y a*를 제외한 사건기능동사들 간의 대체 가능성은 이들이 현동화하는 술어명사의 의미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15)에서처럼 현동화되는 명사가 *séisme*일 경우, 이 명사를 현동화하는 기능동사 *se produire*는 *survenir*나 *surgir*와 대체될 수 있는데 반해, *se tenir*나 *se dérouler*와는 대체될 수 없다.

- (17) a. Un séisme (s'est produit +est survenu + a surgi) au Japon.
 b. Un séisme (*s'est tenu +*s'est déroulé) au Japon.

한편, (16)의 *concert*의 경우는, *se tenir*나 *se dérouler*가 현동화할 수는 있지만, *se produire*나 *survenir*, *surgir*는 그럴 수가 없다.

- (18) a. Un concert (s'est tenu +s'est déroulé) au centre culturel.
 b. Un concert (*s'est produit + *est survenu + *a surgi) au centre culturel.

이러한 차이는, 사실, *séisme*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우발사건' 이고 *concert*는 인간의지에 의해 개최되는 '계획사건' 이라는 의미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이다.¹²⁾ 술어명사에 따른 결합가능 기능동사의 차이는 대칭명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il y a*가 *guerre*를 현동화할 때는 *avoir lieu*, *se produire*,

1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ee, S.-H. (2001)을 참조.

se dérouler 모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한 반면, désaccord를 현동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9) a. Il y a eu une guerre entre les Etats-Unis et l'Irak.
b. Une guerre (a eu lieu + s'est produite + s'est déroulée) entre les Etats-Unis et l'Irak.
- (20) a. Il y a eu un sérieux désaccord entre le gouvernement et le Parlement.
b. Un sérieux désaccord (a eu lieu + s'est produit + *s'est déroulé) entre les Etats-Unis et l'Irak.

한편, désaccord는 apparaître나 se manifester, persister 등의 사건기능동사들과 결합할 수 있는데 반해 guerre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 (21) a. Un sérieux désaccord (a apparu + s'est manifesté + a persisté) entre les Etats-Unis et l'Irak.
b. Une guerre (?*a apparu + *s'est manifestée +*a persisté) entre les Etats-Unis et l'Irak.

이렇듯, 대칭명사들도 다른 술어명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합 가능한 기능동사들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결국 대칭명사의 통사행태를 밝히고 기술하는 과정에, 이들이 결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동사들을 명시적으로 표상하고 이들 두 요소 간의 결합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대칭명사와 기능동사들 간의 결합관계를 밝힐 것인가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대칭명사에 대한 세밀한 의미분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2. 대칭명사의 의미유형과 기능동사

이 문제와 관련하여 G. Gross (1996)는 술어명사와 기능동사 간의 결합관계가 전자의 의미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따라서, 술어명사를 그 의미유형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이 두 요소들 간의 복잡한 결합관계를 밝힐 수 있고, 특정 술어명사가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동사들을 체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다음을 예로 들고 있다(G. Gross 1996: 57-60).

- (22) <opérations industrielles>: procéder à
 Alors on (procède au + ? fait le) démoulage de la statue.
 <actes juridiques ou administratifs>: procéder à
 Les gendarmes ont (procédé à l'arrestation des coupables.
 <opérations chirurgicales>: faire, pratiquer
 Le chirurgien a (fait + pratiqué) une amputation à Paul.
 <crimes et délits>: commettre, perpétrer
 Ce gang a encore (commis + ? fait) un assassinat.
 Le crime qu'il a perpétré est encore plus abominable.
 <bruits vocaux>: émettre, pousser
 Le blessé (émet + ? fait) des râles.
 L'enfant a (poussé + ? fait) un terrible cri.
 <états physiques>: être (en + dans un Adj) état de
 Luc est (en + dans un grand) état de fatigue.
 <états psychologiques>: être dans (un état de)
 Luc est dans un état d'excitation.
 Luc est dans une grande excitation.
 <maladies physiques>: avoir
 Luc a la (tuberculose + grippe).
 <maladies psychiques>: être de

Luc est d'une névrose inimaginable.

<sentiments>: avoir, être de:

Luc (a + est d') une tristesse sans bornes.

우리는 이 가정에서 출발하여 실제로 프랑스어 사건명사(nom d'événement)의 대상부류를 직접 구축하여 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한 바 있다.¹³⁾ 즉,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각 부류별 명사들과 결합할 수 있는 기능동사는 물론 이 명사들과 빈번히 그리고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각종 술어들을 망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었다. 다음의 【표 1】은 사건명사의 한 부류인 (réunions festives)의 구성과 내용을 예로 든 것이다.

사실, 대칭명사의 경우에도 의미유형과 기능동사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uerre처럼 물리적인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bataille나 combat는 guerre와 유사한 결합관계를 보이고, 반면 désaccord처럼 대치상태 혹은 대립상태와 관련이 있는 mécontente나 divergence는 désaccord와 유사한 결합관계를 보인다.

(23) a. Une bataille (a eu lieu + s'est produite + s'est déroulée) entre les Etats-Unis et l'Irak.¹⁴⁾

b. Un combat (a eu lieu + s'est produit + s'est déroulé) entre les Etats-Unis et l'Irak.

(24) a. Une bataille (?*a apparu + *s'est manifestée +*a persisté) entre les Etats-Unis et l'Irak.

b. Un combat (?*a apparu + *s'est manifesté +*a persisté) entre les Etats-Unis et l'Irak.

13) Lee, S.-H. (2001) 참조.

14) 예문 (23)-(25)는 Le Monde 기사를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가공한 것이다.

【표 1】 대상부류 <réunions festives>의 구성과 내용

<réunions festives>	continuer	se rendre à
banquet	durer	
bal	se terminer	4.1.2. N v =N2
gala	s'achever	convier à
réception		inviter à
fête	3. Supports d'action	
vernissage	faire	4.2. Adjectifs
cocktail	donner	somptueux
		fastueux
1. Supports appropriés	4. Opérateurs appropriés	
avoir lieu		4.3. Noms
il y a	4.1. Verbes	convive
se tenir		invité
se dérouler	4.1.1. Név=N1	invité d'honneur
se donner	offrir	hôte/hôtesse
	organiser	
2. Supports aspectuels	préparer	4.4. Connecteurs
s'ouvrir (par)	participer à	en l'honneur de
commencer	prendre part à	en hommage à
débuter (par)	assister à	à l'attention de
se dérouler	aller à	à l'occasion de

(25) a. Une forte m sentente (a apparu + s'est manifestée + a persisté) entre les Etats-Unis et l'Irak.

b. Une profonde divergence (a apparu + s'est manifesté e + a persisté) entre les Etats-Unis et l'Irak.

바로 이러한 관찰에 근거하여, 우리는 대칭명사들의 의미유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그 방법으로는 그간 논항명사와 술어명사들의 의미유형 구축에서 효용성을 인정받은 대상부류 이론에 준거하고자 한다.

4. 대상부류(classes d'objets) 이론

대상부류 이론은 G. Gross¹⁵⁾가 제안하는 언어의 전산처리 및 자동번역을 위한 언어기술의 한 방법론이다. 초기에는 불어의 다의어 처리와 관련하여 논항 기술의 엄밀성과 형식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되었다가, 점차 통사·의미유형에 따른 술어분류 등 술어 기술에까지 확장, 적용되고 있다.¹⁶⁾

대상부류 이론의 핵심은 그간 의미영역의 분할에 사용되어 온 의미자질(traits)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엄밀하고 형식적인 언어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의미자질이란 [±animé], [±humain], [concret], [abstrait] 등과 같이 논항에 대한 술어의 선택제약 기술을 위해 명사의 의미영역을 표상하는데 사용되는 이항대립적 의미자질(traits sémantiques)를 말한다.¹⁷⁾ 기존 의미자질은 그 정의가 형식적이지 못한 관계로 의미영역이 자의적이고 직관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각 의미자질이 포괄하는 의미영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선택제약 등 세밀한 의미차이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 의미자질을 엄밀한 통사기준에 의해 재정의하고, 이들을 다시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보다 세밀한

15) Gross, G.(1992, 1994a, 1994b, 1995a, 1995b).

16) 최근에는 LLI (Laboratoire de Linguistique Informatique, CNRS/Université Paris 13)에서 진행 중인 불어 전자사전 및 독어, 스페인어, 그리스어 등 다른 언어들과 불어 간의 이계어 전자사전 구축작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한국어 전자사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온톨로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연어 처리에 기반이 되는 언어기술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상부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Le Pesant, D. et Mathieu-Colas, M.(1998), Lee, S.-H.(2001), 박동호(2000), 이성현(2001a, 2001b)을 참조. 한국어 전자사전 개발에서의 대상부류 이론 활용은 이성현(2005) 및 홍재성 외(1998-2005)를 참조.

17) 논항에 대한 술어의 선택제약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들과 문제점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Giry-Schneider, J.(1994)를 참조.

의미영역으로 분할하는 중층적 의미부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대상부류 이론의 요체이다. 다시 말해서, 대상부류 이론은 각각 “新의미자질(nouveaux traits)”과 “대상부류(classes d'objets)”라고 불리는 두 층위의 의미부류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기술 방법론이다.

이때, 각 층위의 의미부류들은 어휘요소들 간의 결합특성이라고 하는 통사적 근거에 따라 정의되는 의미영역을 표상하고, 동시에 이를 공유하는 실제 명사들을 망라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신의미자질의 정의와 구축에 통사적 근거가 되는 어휘들을 일반술어(opérateurs généraux)라고 하고, 대상부류의 정의와 구축에 근거가 되는 어휘들을 적정술어(opérateurs appropriés)라고 부른다는 점도 미리 지적해 두자.¹⁸⁾

4.1. 新의미자질과 일반술어

신의미자질은 기존 의미자질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통사적 기준에 따라 정비·보완한 결과로서 논항 의미자질과 술어 의미자질로 구분된다. 현재 재정의 되어 활용되는 신의미자질은 다음과 같다.

- 논항 의미자질: [humain], [animal], [végétal], [concret], [locatif], [temps]
- 술어 의미자질: [humain prédicatif], [état], [action], [événement]

이 의미자질들은 모두가 형식적인 통사기준, 즉 각각에 고유한 일반술어에 의해 정의된다. 예를 들어 [humain]은 penser, réfléchir, comprendre 등과 같은 동사들의 주어 자리나, parler, dire, téléphoner 등의 간접목적보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의미영역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이 술어들과 결합 가능한 명사

18) 신의미자질이나 대상부류의 정의에 기능동사가 사용이 될 경우에는 이들을 각각 일반기능동사(supports généraux), 적정기능동사(supports appropriés)로 구별하여 칭한다.

들이 공통적으로 표상하는 의미영역을 [humain]이라고 하고, 이같은 정의의 통사적 근거가 되는 상기 동사들을 [humain] 의미자질의 일반술어라고 부른다.

4.2. 대상부류와 적정술어

대상부류는 신의미자질의 의미영역을 보다 세밀하게 분할하여 얻어진 의미자질의 하위부류들로 정의된다. 예컨대, 의미자질 [concret]는 <moyens de transport routier>, <aliments>, <vêtements> 등과 같이 보다 세밀한 의미영역을 표상하는 많은 대상부류들을 포함한다.¹⁹⁾

(26) [concret] vs

<moyens de transport routier>: auto, taxi, bus, camion, autocar,

<aliments>: steak, viande, poisson, fruit, légume, ...

<boisson non alcoolis e>: thé, café, jus de fruit, ...

<boisson alcoolique>: bière, saké, vin rouge, cognac, ...

<vêtements>: veste, robe, chemise, patalon, ...

<instruments musicaux à cordes>: violon, violoncelle, harpe, ...

etc.

이들도 의미자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통사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예를 들어, voiture, taxi, bus, auto, camion 등의 명사를 포함하는 대상부류 <moyens de transport routier>는 동사 rouler, être en stationnement, caler,

19) LLI에서 신의미자질 [concret]의 하위분할을 통해 구축한 대상부류의 수에 대한 공식적 자료는 아직 없지만, 동일한 방법을 한국어 명사에 적용하여 구축된 세종 명사 의미부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2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LLI에서 신의미자질 [humain]을 분할하여 구축한 대상부류는 50여개에 이른다. cf. Gross, G. (1995b).

dépasser, ralentir 등의 주어 자리, 또는 prendre, rouler en, conduire, louer, garer 등의 목적보어 자리에 나타나는 의미영역으로 정의되고, 이때 사용된 동사어휘들은 <moyens de transport routier>의 적정술어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대상부류 <aliments>은 적정술어 'manger', 'savoureux', 'délicieux' 등과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명사들의 집합으로서 이 부류 정의에 사용된 상기 어휘들이 <aliments> 부류의 적정술어를 구성한다.

4.3. 대상부류 구축의 실례: <moyens de transport>

이상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실제 대상부류를 구축하는 방법을 <moyens de transport> 부류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축해야 할 부류 설정:
⇒ <moyen de transport>
- 설정 대상 부류의 의미영역을 특징짓는 의미요소 추출:
⇒ “le mouvement”
- 이 요소가 실현되어 있는 어휘표현-적정술어 설정:
⇒ vitesse, rapide, lent, etc.
⇒ voyager en, se déplacer en, monter dans, etc.
- 적정술어와의 결합가능성에 따라 해당명사 추출:
⇒ auto, bus, train, avion, etc.

이렇게 설정된 대상부류로부터 이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서 보다 세밀한 대상부류들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다음은 <moyens de transport>로부터 분할, 설정된 하위부류들로서 각 부류들의 내적구성도 아울러 보여주기 위한 예이다.

(27) a. <moyens de transport routier>

- Noms: voiture, auto, bus, camion, etc.
- Opérateurs appropriés:
 - garer <m.t.r.> au parking/sur le bas-côté
 - changer les pneus de <m.t.r.>

b. <moyens de transport ferroviaire>

- Noms: train, tramway, métro, etc.
- Opérateurs appropriés:
 - déraillement de <m.t.f.>
 - <m.t.f.> arriver à la gare
 - <m.t.f.> desservir la gare/station de

c. <moyens de transport fluvial ou maritime>

- Noms : bateau, navire, pétrolier, etc.
- Opérateurs appropriés:
 - naufrage de <m.t.f.m>
 - <m.t.f.m> arriver au port
 - <m.t.f.m> être/demeurer à l'ancre,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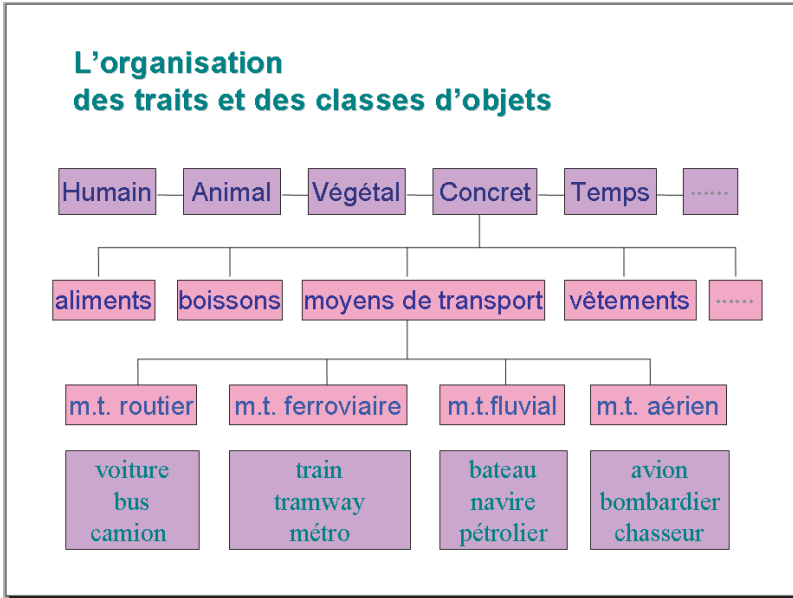
d. <moyens de transport aérien>

- Noms: avion, chasseur, bombardier, etc.
- Opérateurs appropriés:
 - <m.t.a.> atterrir/décoller/s'envoler
 - crash de <m.t.a.>

4.4. 대상부류 체계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신의미자질과 대상부류는 다음과 같이 중층적인 위계구조로 구성되게 된다.

이같은 위계적 구조로 인해 대상부류 체계는 명사 어휘들이 표상하는 다양



【표 2】 의미자질 및 대상부류의 구성 예

한 의미영역에 대한 엄밀하고 명시적인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보다 형식적이고 정밀한 다의어 기술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준다.²⁰⁾

이상과 같이 대상부류는 어휘단위들이 가지는 결합특성이라는 통사근거에 의해 형식적으로 구축되는 의미부류이다. 바로 이 같은 구축 방법상의 특성으로 인해, 대상부류는 논항명사 뿐만 아니라 술어명사의 기술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사실, 다른 어휘요소들과의 결합특성에 근거해서 술어명사의 의미유형을 구축하면, 각 부류의 술어명사가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모든 어휘요소들이 명시적으로 밝혀지게 된다. 우리가 '대칭' 명사의 통사-의미유형에 관한 연구에 대상부류 이론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20) 대상부류별 기술내용 및 방법은 【표 1】을 참조.

유에서이다. 우리가 대칭명사의 대상부류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이 부류에 속하는 어휘요소들의 통사행태, 더군다나 의미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행태들을 밝히는 과정이 된다고 하겠다. 그 결과, 우리의 연구대상인 ‘대칭’ 술어명사와 기능동사들 간의 결합관계도 아울러 드러나게 될 것이다.

5. 대칭명사의 대상부류

앞에서 (§.3.1.) 우리는 술어명사들은 우선 이들이 나타내는 사행의 종류에 따라 [행위], [상태], [사건]의 의미자질로 분류됨을 보았다.²¹⁾ 대칭명사의 대상부류 구축 역시 이들 명사에 대한 의미자질의 분류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칭명사가 갖는 이중적 용법이다.

5.1. 대칭명사의 이중적 용법(double emploi)

우리는 앞에서 (§.2.1.) 다음의 구문에 나타나는 술어명사들을 대칭명사로 정의한 바 있다.

- | |
|---|
| (I) <i>il y a</i> Npréd entre A et B
(II) A Vsup Npréd avec B
(III) B Vsup Npréd avec A
(IV) A et B Vsup Npréd |
|---|

여기서 (I)은 대칭명사가 ‘사건(événement)’ 사행을 표상하고자 할 때 구성하

21) 사실, 술어 의미자질로는 [humain prédicatif]가 있기는 하나, 이 자질은 사행 (procès)의 표상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는 구문이고, (II)-(IV)의 경우는 '행위(action)' 혹은 '상태(état)'를 표상할 할 때 취하게 되는 구문이다. 예를 들어, 대칭명사 *combat*는 구문(I)을 취하면서 사건을 표상하기도 하지만, (II)-(IV) 구문에 나타나서 행위를 표상하기도 한다.

(28) Il y a eu un sanglant combat entre les Casques bleus et les miliciens.²²⁾

- (29) a. Les Casques bleus ont fait un sanglant combat avec les miliciens.
 b. Les miliciens ont fait un sanglant combat avec les Casques bleus.
 c. Les Casques bleus et les miliciens ont fait un sanglant combat.

한편, 대칭명사 *désaccord*는 구문 (I)에 나타나서 사건을 표상하거나, (II)-(IV) 구문에도 나타나 상태를 표상한다.

(30) Il y a eu un sérieux désaccord entre l'Inde et le Pakistan.

- (31) a. L'Inde a eu un sérieux désaccord avec le Pakistan.
 b. le Pakistan a eu un sérieux désaccord avec l'Inde.
 c. L'Inde et le Pakistan a eu un sérieux désaccord.

물론, (31)의 예만으로는 *désaccord*가 상태를 표상한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기능동사 *avoir*가 복합과거 시제로 나타났기 때문인데,²³⁾ 시제를 현재로 대체해보면 상태로서의 의미가 보다 강화된다.

22) 이 예문을 포함하여 §.4에서 제시되는 예문들은 대부분 Le Monde와 Google의 검색 결과를 필자가 필요에 따라 가공한 것이다.

23) 이는 복합과거 시제가 *énoncé*의 사건적 해석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Anscombre, J.-C. (1995)는 사건성(*évenementialité*)을 과정성(*processivité*)이나 동작주성(*agentivité*)을 층위가 다른 것으로 구별한다. 전자는 *énoncé*와 관

- (32) a. L'Inde a un sérieux désaccord avec le Pakistan.
 b. Le Pakistan a un sérieux désaccord avec l'Inde.
 c. L'Inde et le Pakistan a un sérieux désaccord.

이렇게 볼 때, 대칭명사 *combat*는 [사건]과 [행위]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다의어로, *désaccord*는 [사건]과 [상태]의 의미를 함께 갖는 다의어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어휘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이 단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사행을 표상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의성(*polysémie*)”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반론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다의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관련된 입장 차이이지²⁴⁾ 옳고 그름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G. Gross (1999)는 한 어휘 내 의미의 분화는 형태, 통사 상으로 반영되므로, 다의성의 문제는 단순히 의미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미, 형태, 통사를 모두 포괄하는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석의 단위로 의미(*sens*) 대신 용법(*emploi*)으로 칭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어떤 의미가 통사상의 차이를 야기할 때 이를 독립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대칭명사들은, (28)–(31)의 예에서 보듯이, 사행이 [사건]을 표상하느냐, [행위] 혹은 [상태]를 표상하느냐에 따라 문장구조의 차이, 즉 통사상의 차이를 야기하므로, 이들을 다의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한다.

대칭명사가 [사건]과 [행위] 혹은 [사건]과 [상태]를 표상하는 이중적 용법을 갖는다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대상부류 구축이 우선은 ‘대칭행위’와 ‘대칭상태’ 두 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대칭사건’은 결국 ‘대칭행위’에 속하는 명사들과 ‘대칭상태’에 속하는 명사들의 합집합으로

련된 aspect의 층위이고, 후자 둘은 어휘의 내재적 속성으로서 Aktionsart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Hier, Pierre a été malade>가 사건적 해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술어인 *malade*는 여전히 ‘non processif’, ‘non agentif’의 속성을 가진 상태 술어라고 분석한다.

24) 이와 관련해서는 Gross(1999), Le Pesant(1997), 박만규(2002)를 참조할 것.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칭명사들 중에 [사건]의 용법만을 갖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칭행위> 부류와 <대칭상태> 부류의 구축에 집중하기로 한다.

5.2. <대칭행위> 부류 vs <대칭상태> 부류

이 두 부류는 대칭명사가 동작주성(agentivité)과 과정성(processivité)을 갖느냐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주어가 행위의 주체(agent)인 대칭명사들은 일반적으로 대칭명사 구문 (II)의 Vsup에 faire나 lancer, livrer, engager가 올 수 있다.

- (33) a. Les Etats-Unis ont fait la guerre avec l'Irak.
 b. Les Casques bleus ont fait un sanglant combat avec les miliciens.
 c. Boris Eltsine avait décidé de faire la bataille avec le Parlement.

- (34) a. Les Etats-Unis ont (lancé + livré + engagé) la guerre contre l'Irak.²⁵⁾
 b. Les Casques bleus ont engagé un sanglant combat avec les miliciens.
 c. Boris Eltsine avait décidé d'engager la bataille avec le Parlement.

이에 반해, 비동작주성(non agentivité)과 정태성(stativité)을 속성으로 갖는 대칭명사들의 경우는 상기 기능동사들과의 결합이 어렵다.

- (35) a. *L'Iran fait un différend avec l'Arabie Saoudite à propos d'un pèlerinage d'un de ses ressortissants.

25) 이때 전치사는 avec에서 contre로 바뀌게 된다. 물론 이 구문에서는 두 논항 — les Etats-Unis와 l'Irak — 의 교체는 의미상의 변화를 초래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결합이 대칭명사의 agentivité에 기인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논의는 하지 않도록 한다.

- b. *Deux partis font un désaccord sur le quinquennat.
- c. *L'Inde fait fréquemment un conflit frontalier avec le Pakistan.

- (36) a. L'Iran a (*engagé +*livré) un différend diplomatique avec l'Arabie Saoudite.
- b. *Deux partis se sont livré un désaccord sur le quinquennat.
 - c. L'Inde a (* livré + *lancé) un conflit frontalier contre le Pakistan.

정태성을 속성으로 하는 대칭명사들의 경우는, 대신에, subsister, persister, perdurer 등 상태의 지속을 표현하는 기능동사나 비동작주성 경험주들과의 관계를 표상하는 기능동사 être en과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 (37) a. La violente mésentente a subsisté entre les deux députés durant toute la séance parlementaire.
- b. Le litige concernant le mode de règlement a persisté entre ces deux entreprises pendant tous les pourparlers.
 - c. Le vif dissentiment a perduré entre les parents d'élèves et le 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durant toute l'année scolaire.

- (38) a. L'Iran est en différend avec l'Arabie Saoudite à propos d'un pèlerinage d'un de ses ressortissants à la Mecque.
- b. Deux partis sont en désaccord sur le quinquennat.
 - c. L'Inde est fréquemment en conflit frontalier avec le Pakistan.

이상과 같은 기능동사와의 결합 차이를 근거로 대칭명사는 행위 대칭명사 부류와 상태 대칭명사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을 <대칭행위>와 <대칭상태> 부류로 부르기로 한다. 이들 부류는 또한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보다 세밀한 하위부류들로 구분될 수 있다.

5.3. <대칭행위>의 하위부류

<대칭행위>에 속하는 명사들은 우선 그 행위가 물리적이냐 음성적이냐에 <물리적 대칭행위>와 <언술 대칭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같은 성격에 따라 각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의 결합관계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언술 대칭행위> 부류에 속하는 명사 *dispute*, *engueulade*, *controverse*는 *bryant*, *assourdissant*, *inaudible* 등의 형용사와 결합이 빈번한 반면, *meurtrier*, *sanglant*, *mortel* 등 물리적 신체적 접촉과 관련이 있는 형용사들과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 (39) a. Une bruyante dispute s'est produite entre Max et Léa.
 b. Une assourdissante engueulade a éclaté hier soir chez mes voisins de palier.
 c. Il y a eu une inaudible controverse entre ces deux députés pendant la séance.
- (40) a. *Une controverse meurtrière a eu lieu entre deux députés.
 b. *Une sanglante contestation a eu lieu au sein de l'Assemblée nationale.
 c. *Une polémique mortelle a surgi sur la question du quinquennat.

뿐만 아니라, 이들 명사는 기능동사로서 *faire*를 취하지 않고 *avoir*를 취한다.

- (41) a. Le patron et les représentants des syndicats ont (eu + *fait) une vive altercation à propos du plan social déposé.
 b. Le minist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é a (eu + *fait) une légère dispute sur l'application des 35 heures avec le ministre des Transports
 c. Le Président et le Premier ministre ont (eu + *fait) une querelle touchant aux problèmes de politique extérieure.

〈물리적 대칭행위〉 부류는 이에 속하는 명사들과 결합 가능한 기능동사에 따라 〈의도성 물리적 대칭행위〉와 〈비의도성 물리적 대칭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affrontement*, *bagarre échauffouré* 등은 기능동사 *avoir*와만 결합할 수 있고, *faire*, *lancer*, *engager*, *livrer* 등의 기능동사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 (43) a. Les forces de l'ordre ont eu un affrontement contre les grévistes.
b. Les hooligans anglais ont eu une bagarre avec les supporters étrangers.
- (43) a. Les forces de l'ordre ont (*fait + *lancé) un affrontement contre les grévistes.
b. Les hooligans anglais ont (?engagé + *livré) une bagarre avec les supporters étrangers.

이는 *affrontement*, *bagarre*, *échauffourée*의 주어 논항이 동작주성(agentivité)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들 명사들은 *mener*, *poursuivre*, *arrêter*, *stopper*, *interrompre* 등과 같이 사행의 전개에 대한 주어 논항의 의도적 개입을 표상하는 동사들과의 결합도 불가능하다.

- (44) a. Les voyous ont (*mené + *poursuivi) une échauffourée contre les gardiens de la paix.
b. Les forces de l'ordre ont (?arrêté + ?stoppé) l'affrontement contre les grévistes.
c. Les hooligans anglais ont (?*interrompu + ?*suspendu) la bagarre avec les supporters étrangers.
d. Les voyous ont (*reporté + *avancé) l'échauffourée contre les gardiens de la paix.

〈비의도성 물리적 대칭행위〉는 바로 이같은 통사행태를 보이는 〈물리적 대

칭행위) 명사들을 포함하는 하위부류로서 *affrontement*, *bagarre*, *échauffourée* 외에도 *accrochage*, *mêlée*, *rixé*, *escarmouche* 등의 명사들을 포함한다. 반면 <의도성 물리적 대칭행위>는, (33)-(34)에서 본 바와 같이, 상기한 동사들과 결합할 수 있는 *guerre*, *bataille*, *combat*, *fusillade*, *échanges de tirs* 등의 명사들로 구성된다.

한편, <언술 대칭행위> 부류도 이에 속하는 명사들의 다양한 의미속성과 그에 따른 통사행태의 차이에 따라 보다 세밀한 부류들로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우선은 <언술 대칭행위>의 의도성 여부에 따라 <의도성 언술 대칭행위>와 <비의도성 언술 대칭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débat*, *dialogue*, *entretien* 등과 같이 그 사행의 시작이 어떤 목표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언술 대칭행위>들을 포함하고, 후자는 *dispute*나 *engueulade*, *chamaillerie*, *prise de bec*처럼 사행의 시작이나 전개가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언술 대칭행위>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하위분류 역시 각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의 통사행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의도성 언술 대칭행위> 명사들은 사행의 시작이나 전개에의 개입 가능성을 함축하는 기능동사나 술어동사들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즉, 주어 논항이 동작주(agent)임을 나타내는 기능동사인 *faire*, *soutenir*, *tenir*, *mener*, *nouer*, *renouer* 등과 결합할 수 있고, *annuler*나 *reporter*, *rompre*, *établir*처럼 사행에의 개입을 나타내는 다양한 술어들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 (45) a. Nous voulons faire un dialogue avec vous au sujet des drogues.
 b. Paul soutient une conversation animée avec Esther.
 c. Paul et Marie ont tenu une longue discussion.
 d. Le directeur a mené (une discussion + un dialogue) ouvert(e) avec sa secrétaire.
 e. Le ministre noue désormais le dialogue avec son adversaire.
 f. Paris renoue le dialogue avec la représentation locale.

- (46) a. Le débat sur la réforme des retraites a été (annulé + reporté à mardi prochain).
- b. Le journaliste a animé le débat entre des jeunes artistes et la Mairie de Paris.
- c. Après avoir (rompu + établi) le dialogue diplomatique intense, les partenaires s'attaquent à un nouveau dossier: l'aménagement des frontières.

한편, <비의도성 언술 대칭행위>는 상기의 특성들을 갖지 못한다.

- (47) a. Paul a (*fait + *entamé + *engagé + *lancé) une (engueulade + dispute + prise de bec) terrible avec sa secrétaire.
- b. Le Centre culturel français a (*organisé + *dirigé + *préparé) une (dispute + chamaillerie + prise de bec).
- c. Le journaliste a animé (*la dispute + *l'altercation) entre les jeunes artistes et la Mairie de Paris.

또한, 언술행위의 목적성을 명확히 해주는 명사 thème와의 결합도 불가능하다.

- (48) Les thèmes de la (discussion + ?*dispute + *prise de bec + * altercation) seront surtout l'emploi et la protection sociale.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이 사건구문(construction événementielle)에 나타날 때는, se produire나 survenir, éclater, surgir 등 우발사건(événements fortuits) 명사들을 현동화하는 기능동사들과 결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49) a. Une (dispute + prise de bec parlementaire) (?*s'est déroulée + s'est produite) hier soir dans la capitale italienne.

- b. Une (engueulade + chicane) entre Paul et sa mère s'est produite hier soir à propos de leur maison à la campagne.
- c. Une (dispute + prise de bec) (est survenue + a éclaté + a surgi) entre lesdeux repreneurs du "Quotidien de Paris".

S.-H. LEE(2001: 99-113)에 따르면, 비계획적이고 우발적인 사건(événements fortuits)들은 흔히 부정적인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해로운 결과(effets néfastes)를 표상하는 술어들과의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의도성 언술 대칭행위> 부류 명사들에서도 관찰된다. 즉, 이 부류의 명사들이 나타내는 행위 혹은 사건들은 정리하고 해결해야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이 있는 술어 résoudre나 régler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 (50) a. Paul a résolu la chamaillerie de ses deux fils.
- b. S'il échoue à régler la dispute qui oppose joueurs et propriétaires des clubs, il aura au moins eu le mérite d'avoir essayé.
- c. Ils ont réussi à régler une chicane avec des amis.

<언술 대칭행위>를 분할하는 <의도성 언술 대칭행위>와 <비의도성 언술 대칭행위> 부류는 또한 그 대칭성이 개별적(혹은 이원적) 차원이나 집단적(혹은 다원적) 차원이냐에 따라 또 다시 하위분할될 수 있다. 예컨대, dialogue나 conversation, entretien처럼 그 대칭성이 개별적 차원인 것들은 <이원적 의도성 언술 대칭행위>로, débat처럼 그 대칭성이 집단적인 차원인 것들은 <다원적 의도성 언술 대칭행위>로 분할될 수 있다. 이때의 다원성/이원성의 대립은 무엇보다도 논쟁적 성격의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débat의 경우 opposer와 결합하는 반면 dialogue나 conversation, entretien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 (51) a. A l'issue d'un long débat ayant opposé Roger Romani, ministre chargé des relations avec le Parlement, et Pierre Mazeaud (RPR), président de la commission des lois, les députés ont écarté trois amendements du gouvernement.
- b. (*Un dialogue + *une conversation + *un entretien) a opposé Paul et son chef.

opposer가 논쟁적인 성격을 함축하는 술어라는 것은 이 동사가 polémique, controverse, dispute 등과 특징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 (52) a. Une polémique oppose les deux procureurs (Valdivieso et Vasquez Velasquez), le second étant accusé de torpiller les investigations du premier.
- b. (Une dispute + une controverse) a opposé Français et Américains.

<이원적 의도성 언술 대칭행위>가 근본적으로 논쟁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²⁶⁾ 이 부류 명사들의 논항들이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로서도 확인된다.

26) discussion의 경우, 논쟁적 성격을 부가하는 형용사와 함께 쓰이면 opposer와 결합할 수 있다.

- (i) Une vive discussion a opposé A et B. vs *Une discussion amicale a opposé A et B.

하지만, 이러한 형용사 없이는 두 논항의 대립을 나타내는 술어들과 결합할 수가 없다.

- (ii) (*Une discussion + *une conversation) a (divisé + séparé) Paul et Marie.

한편, dialogue나 conversation의 경우 논쟁적 성격을 부가하는 형용사와 결합하더라도 상기 구문에 나타날 수가 없다.

- (iii) (*Un dialogue enragé + *une conversation acharnée) a (divisé + séparé) Paul et Marie.

- (53) a. Paul a (mené + lancé) un dialogue (avec + *contre) son chef.
 b. Paul s'est livré à un(e) (dialogue + conversation + entretien) (avec + *contre Luc).
 c. Paul et Luc se sont livrés à un(e) (dialogue + conversation + entretien) (E+ l'un avec l'autre + *l'un contre l'autre).

이와 달리 논쟁적 성격을 갖는 débat는 논항들의 대립관계를 보여주는 구문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는 집단적이며 논쟁적인 성격을 대표하는 <언술 대칭행위> 명사인 polémique와 유사하다.

- (54) a. Les cinéastes et les producteurs se sont livrés à un(e) (débat + polémique) (les uns avec les autres + les uns contre les autres).
 b. Les cinéastes et les producteurs ont lancé une polémique (les uns avec les autres + les uns contre les autres).

<이원적 의도성 언술 대칭행위>와 <다원적 의도성 언술 대칭행위>의 대립은 또한 원인을 도입하는 술어와의 결합에서도 확인된다. 전자의 경우 provoquer나 soulever와 결합이 불가능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다.

- (55) a. L'installation du nouveau réseau a provoqué (*un dialogue + *une conversation) entre Paul et Marie.
 b. La politique européenne de la France a soulevé (*un dialogue + *une conversation) entre les deux ministres.
- (56) a. L'installation du nouveau réseau a provoqué un débat entre les deux partis.
 b. La politique européenne de la France a soulevé un débat entre les deux ministres.

〈언술 대칭행위〉에 있어서의 이원성/다원성 대립은 〈비의도성 언술 대칭행위〉에서도 관찰되는데, 사행의 개시와 관련된 원인표현 및 사행에의 개입과 관련된 술어표현의 결합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다원적 비의도성 언술 대칭행위〉에 속하는 명사 *polémique*와 *controverse*는 원인표현 *alimenter*나 *susciter*와 결합하는데 반해 〈이원적 비의도성 언술 대칭행위〉에 속하는 명사 *dispute*, *chamaillerie*, *prise de bec*은 그렇지 못하다.

- (57) a. La politique européenne de la France a (alimenté + suscité) (une polémique + une controverse) entre les deux ministres.
 b. La réforme a (alimenté + suscité) une (*dispute + *chamaillerie + *prise de bec) entre jeunes chercheurs et doctorants.

한편, 〈이원적 비의도성 언술 대칭행위〉에 속하는 명사들은 *intervenir*나 *arbitrer* 등 사행의 종결을 위한 개입을 함축하는 술어들과의 결합이 가능한 반면 〈다원적 비의도성 언술 대칭행위〉에 속하는 명사들은 그렇지 못하다.

- (58) a. Paul (est intervenu dans + a arbitré) (la chamaillerie + la prise de bec + *la polémique) entre Francis et son épouse.
 b. Paul s'est interposé dans (une dispute + *une polémique) entre Francis et son épouse.

이상과 같이 〈대칭행위〉 부류는 이에 속하는 명사들의 통사·의미적 속성을 근거로 보다 세밀한 하위부류들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칭행위〉 부류는 지금까지 살펴본 〈물리적 대칭행위〉와 〈언술 대칭행위〉외에도 또 하나의 하위부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coopération*, *contrat*, *réconciliation* 등의 명사들은 상기 두 부류 — 〈물리적 대칭행위〉와 〈언술 대칭행위〉 — 에는 속하지 않지만, 대칭명사의 통사·의미 속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59) a. Il y a une coopération assez forte entre le Canada et le Gabon.
 b. La France a une coopération bilatérale avec la Jordanie.
- (60) a. Le 18 novembre 2005, il y a eu un contrat de transaction entre les parties.
 b. Elle a un contrat exclusif avec Pepsi.
- (61) a. Il y a eu une réconciliation entre les villes et les usines, les dernières s'installaient autour des premières.
 b. Nous avons eu une réconciliation.

즉, 이 명사들은 모두가 대칭행위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행위의 성격은 물리적이거나 언술적이거나 보다는 추상적인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명사가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형용사들을 살펴볼 때 더욱 그러하다.

- (62) a. La France a une coopération (étroite + fructueuse + exclusive + *blessante + *bruyante) avec la Jordanie.
 b. Elle a un contrat (juteux + spécifique + privilégié + définitif + *assourdissant + *sanglant) avec Pepsi.
 c. Il y a eu une réconciliation (parfaite + profonde + *lourde + *bruyante) partielle entre les villes et les usines.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우리는 <대칭행위>의 하위부류로 <물리적 대칭행위>, <언술 대칭행위>와 등위를 이루는 <추상적 대칭행위> 부류를 설정할 수가 있다. 또한, 이에 속하는 명사들의 통사·의미 속성들에 근거하여 보다 세밀한 하위부류들을 구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coopération과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échange, collaboration은 그 사행(procès)이 갖는 지속상(aspect duratif)으로 인해, 사행의 시작과 진행, 종료를 표현하는 시상기능동사들과 결합이 가능하다.

- (63) a. Pour l'instant, l'Institut chinois de recherche des pôles a engagé une coopération fructueuse avec plusieurs universités norvégiennes.
- b. Le Comité mène une coopération fructueuse avec de nombreuses 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 c.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a immédiatement suspendu la coopération multilatérale francophone avec la Mauritanie.

이와는 달리, contrat, convention, accord 등은 그 사행이 기동상(aspect inchoatif)을 갖는 까닭에 이를 표현하는, 다양하면서도 특징적인 기능동사들과의 결합한다.

- (64) a. Maria Sharapova a (signé + passé + conclu) un contrat pluri-annuel avec Land Rover.
- b. Certains pays ont (signé + passé + conclu) une convention fiscale avec la France.
- c. Le Bénin a (signé + passé + conclu) un accord bilatéral avec le Nigeria.

한편, réconciliation과 compromis 등은 그 사행이 종결상(aspect terminatif)을 갖는데, 이로 인해 시상기능동사와의 결합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다. 즉, 지속상을 표현하는 기능동사들과의 결합이 불가능한 반면, 종결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능동사들과 결합이 가능하다.

- (65) a. Paul (*continue + *mène + *poursuit) la réconciliation avec son amie.
 - b. Les Etats-Unis (*continuent + *mènent + *poursuivent) le compromis avec le Japon.
-
- (66) a. Si l'on peut trouver une réconciliation avec une France [...]
 - b. Le choix fait par Lionel Jospin de réaliser un 《compromis》 avec 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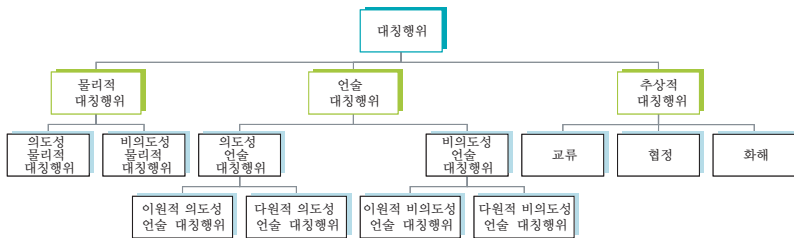
nationalistes [...]

c. Nous pouvons arriver à un compromis honorable avec les Palestiniens.

이러한 통사·의미 특성들을 고려할 때, <추상적 대칭행위> 부류는 적어도 세 개의 하위분류로 분류될 수가 있다. 이들 부류를 각각 <교류>, <협정>, <화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²⁷⁾ 이렇게 지금까지 구축된 <대칭행위>의 대상부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5.4. <대칭상태> 부류의 하위부류

<대칭상태>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은 <대칭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질적



【표 3】 <대칭행위> 부류의 구성

27) 이때 각 부류의 이름은 사행의 시상 차이(différence aspectuelle)를 반영하여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각 부류의 명사들이 공유하는 어휘의미의 유형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이는 사행의 시상 차이가 결국은 어휘의미(sens lexical)에서 기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시상 특성을 갖는 여러 하위부류들이 구축될 경우를 대비해서이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하위부류들은 궁극적으로 <행위>의 다른 하위부류들과 함께 그 위계가 재조정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 통사행태를 보인다. 그 통사행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cf. §.4.2.), 비동작주성과 정태성이라는 의미속성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대칭상태>에 속하는 명사들은 동작주 주어를 함축하는 organiser, planifier, programmer 등의 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

- (67) a. L'Iran a (*organisé + *préparé) un différend diplomatique avec l'Arabie Saoudite.
- b. Deux partis ont (*planifié + *programmé) un désaccord sur le quinquennat.
- c. L'Inde a (*organisé + *planifié) un conflit frontalier contre le Pakistan.

반면, 이 명사들이 표상하는 상태의 출현이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것임을 함축하는 '원인동사'²⁸⁾와의 결합은 자연스럽다.

- (68) a. La réduction de la période de chasse a déclenché une vive tension entre les écologistes et les chasseurs.
- b. Une politique intégriste a fait apparaître un différend diplomatique entre les deux pays.
- c. Le problème des 35 heures a fait éclater au grand jour le profond désaccord qui existait d'entre le gouvernement et l'opposition.

또한, 물리적인 접촉을 전제로 하는 <물리적 대칭행위> 부류의 명사들이 빈번히 결합하는 강도표현 형용사 sanglant, meurtrier, mortel 등과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 (69) a. Un différend (*sanglant + *meurtrier) a éclaté entre l'Inde et le

28) Dubois, J. & Dubois-Charlier, F. (1997)의 E4F classe에 속하는 동사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Pakistan.

b. *Une divergence mortelle a séparé le gouvernement et l'opposition.

〈대칭상태〉에 속하는 명사들의 강도 혹은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sérieux, profond, fondamental 등의 형용사가 결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70) a. Un (sérieux + grave) différend a éclaté entre l'Inde et le Pakistan.

b. Une divergence fondamentale sépare le gouvernement et l'Opposition.

c. Un profond désaccord a éclaté entre le patronat et les syndicats.

한편, 〈대칭상태〉를 사건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사건기능동사들도 〈대칭행위〉의 사건기능동사와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이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을 현동화하는 전형적인 사건기능동사들로는 apparaître, se révéler, naître 등이 있다.

(71) a. Un profond désaccord est apparu entre le gouvernement et l'opposition à propos des 35 heures.

b. Une divergence fondamentale entre deux pays s'est révélée à propos de l'élargissement de l'Union européenne.

c. Un sérieux contentieux est né à propos de la frontière entre l'Inde et le Pakistan.

그러나, 이러한 통사행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대칭상태〉 부류 또한 보다 세밀한 의미차이에 의해 하위분류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명사들이 différend, divergence, désaccord 등이 대립적인 성격의 대칭상태, 즉 〈대치적 대칭상태〉을 표상한다면, 이와 반대가 되는 일치나 화합의 대칭상태인 〈합치적 대칭상태〉를 나타내는 대칭명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명사 accord, entente, harmonie, concorde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명사들은 〈대치적 대칭상태〉의 명사들처럼 대칭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 (72) a. Il y a une (divergence + méésentente) profonde entre Paul et Marie.
b. Il y a une (harmonie +concorde) totale entre les grecs et les français.

하지만, il y a와 대체될 수 있는 사건기능동사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즉, <대치적 대칭상태>의 명사들과 결합한 il y a는 surgir나 éclater 등의 동사들과 대체가능한데 반해 <합치적 대칭상태>의 명사들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하다.

- (73) a. Une (divergence + méésentente) profonde a (surgi + éclaté) entre Paul et Marie.
b. Une (harmonie +concorde) totale a (*surgi + *éclaté) entre les grecs et les français.

<합치적 대칭상태>의 명사들은, 대신, régner나 s'instaurer, s'étalbir, s'installer 등의 사건기능동사들과 빈번하게 그리고 특징적으로 결합한다.

- (74) a. Une (entente + harmonie + concorde) sociale règne en France ce dernier temps.
b. Une (entente + harmonie + concorde) sociale (s'instaure + s'établit + s'installe) au Tibet après les négociations avec la Chine.

또한, 사건구조 내에서, <대치적 대칭상태>에 속하는 명사들이 opposer나 diviser, séparer와 빈번히 결합하는데 비해 <합치적 대칭상태>의 명사들은 그렇지가 못하다.

- (75) a. Une méésentente profonde (oppose + divise + sépare) les deux familles.
b. Un désaccord profond (divise + oppose) les deux hommes.
c. Une divergence fondamentale (divise + oppose) les propriétaires des maisons construites sur le pont.

- (76) a. Une harmonie profonde (*oppose + *divise + *sépare) les deux familles.
 b. Un accord total (*divise + *oppose) les deux hommes.

사실, <합치적 대칭상태>는 그 긍정적 속성으로 인해 그 자체가 완벽한 것,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합치적 대칭상태>에 속하는 명사들이 빈번하게 결합하는 동사들은 rompre나 rétablir이다.

- (77) a. Leur concurrence a rompu (la bonne entente + l'harmonie) entre Paul et Marie.
 b. L'intervention de leur fils a rétabli (la bonne entente + l'harmonie) entre Paul et Marie.

이러한 결합가능성은 <대치적 대칭상태>에 속하는 명사들에서는 보기가 어렵다.

- (78) a. L'intervention de leur fils a rompu (*la mésentente + *le désaccord) entre Paul et Marie.
 b. Leur concurrence a rétabli (*la mésentente + *le désaccord) entre Paul et Marie.

여기서, 상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합치적 대칭상태>에 속하는 명사들은 menacer, troubler, détruire, perturber 등의 동사들과도 자연스럽게 결합함도 지적해두자.

- (79) a. La mort de Paul (a menacé + a troublé + a détruit) (l'harmonie + l'entente + l'accord) entre les membres de la famille.
 b. Son licenciement a perturbé (l'harmonie + la bonne entente) entre Paul et Marie.

이상에서 살펴본 <대칭상태> 명사들의 통사행태 상의 차이는 <대칭상태>가 적어도 <대치적 대칭상태>와 <합치적 대칭상태>로 하위분할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대칭상태> 부류에는 relation, rapport, parenté, affinité, différence 등과 같이 <관계>를 표상하는 대칭명사들의 부류도 포함된다. 이들 명사들은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가 대칭명사의 구문에²⁹⁾ 나타날 수 있다.

- (80) a. Il y a une relation étroite entre sécurité alimentaire et lutte contre la pauvreté.
b. Il y a une parenté entre libéralisme et liberté.
c. Il y a une différence entre état des connaissances et dogme.
- (81) a. La Corée a une relation spéciale avec les Nations unies.
b. Le Code civil du Québec a une parenté certaine avec le Code civil français.
c. Il a une différence avec ses opposants.
- (82) a. Le Canada et Haïti ont une relation amicale et de longue date.
b. La pensée de Baudelaire et celle de Pascal ont une parenté des plus étroites.
c. Les écrans des coolpix S5 et S6 ont une différence.

뿐만 아니라, 이 명사들은 (74)-(75)의 문형에서 avoir를 대체하는 entretenir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 (83) a. Le Québec entretient (une relation + un rapport) privilégié(e) avec l'Acadie.

29) 본문의 (14) '대칭명사의 기본문형'을 참조할 것.

- b.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ntretient une (parenté + affinité) évidente avec la politique de décentralisation.
- c. La lecture de modèle entretient une différence sémiologique avec la lecture séquentielle de la phrase écrite.

이러한 속성은 <대칭행위>는 물론이고 <대칭상태> 내의 다른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대칭상태>의 하위부류로 <관계> 부류를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관계>부류의 대칭명사들 또한 보다 세밀한 의미 차이와 이에 기인하는 통사행태의 차이로 인해 서로 구분된다. 먼저, relation과 rapport는 entretenir 외에도 établir와 결합할 수 있는데 반해, parenté와 affinité, différence는 그렇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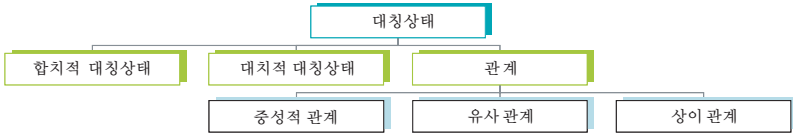
- (84) a. Chaque personne établit une relation intime avec son nom.
- b. Cette composition établit un rapport contradictoire avec la danse.

- (85) a. Le libéralisme établit une (*parenté + *affinité) apparente avec la liberté.
- b. * Il établit une différence avec ses opposants.

한편, différence는 parenté와 affinité, relation, rapport와는 달리 'être en ___ avec' 구문에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는 différence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dissemblance나 écar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86) * Il est en (*différence + *dissemblance) avec ses opposants.

- (87) a. L'être humain est en relation constante avec son environnement.
- b. La foi est en rapport immédiat avec Dieu.
- c. L'utilitarisme moderne est en affinité élective avec le capitalisme



【표 4】 <대칭상태> 부류의 구성

moderne.

d. La postérité d'Adalric est en parenté étroite avec toutes les familles régnautes de France et d'Allemagne.

이상과 같은 통사·의미 속성들의 차이를 고려하여 relation과 rapport 류의 대칭명사들을 포함하는 <중성적 관계>와 parenté와 affinité류를 포함하는 <유사 관계>, différence와 dissemblance류의 명사를 포함하는 <상이 관계>가 <관계>의 하위부류로 설정되었다. 그 결과 구축된 <대칭상태> 부류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통사·의미 속성에 따라 대칭명사의 대상부류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칭명사가 “동시에 사행에 참여하는” 두 개의 의미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2항 술어명사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각각이 표상하는 사행의 의미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통사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질적 통사행태는 대칭명사들이 현동화를 위해 결합하는 기능동사들에서 일차적으로 나타나지만, 이외에도 술어기능을 하는 동사나 형용사들과의 결합관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렇게, 대칭명사의 의미유형을 특징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동사나 술어 — 즉 적정기능동사와 적정술어 — 들이 대칭명사의 대상부류 구축에 근거로 사용

[표 5] 대칭명사 대상부류의 기술 예: <이원적 의도성 언술 대칭명사> 부류

<이원적 의도성 언술 대칭행위(Actions verbales symétriques intentionnelles bilatérales)>			
conversation	dialogue	entretien	face-à-face
causerie	discussion	entrevue	tête-à-tête
A. 적정기능동사(Supports appropriés)			
■ 기본 행위기능동사(Supports d'action de base)			
avoir		tenir	
entretenir		soutenir	
faire		±échanger(conversation, dialogue, discussion)	
■ 시상 행위기능동사(Supports d'action aspectuels)			
aborder	nouer	effectuer	abandonner
amorcer	continuer	réaliser	réengager
entamer	maintenir	clôturer	renouer
engager	mener	clôre	reprandre
s'engager dans	poursuivre	quitter	prolonger
■ 사건기능동사(Supports d'occurrence)			
il y a entre	s'engager sur	se terminer	se rallumer
couler	se poursuivre	se finir	s'atténuer
traîner (à table)	se dérouler	prendre fin	s'apaiser
filer	durer	toucher à sa fin	se calmer
tourner autour de	continuer	s'attiser	
B. 적정술어(Opérateurs appropriés)			
■ Verbes			
- Npéd = N0			
concerner	toucher à	avoir comme sujet	
porter sur	consister à/en		
- Npréd = N1			
écouter	obtenir	raccourcir	animer
entendre	organiser	intercepter	encourager
épier	ménager	interrompre	attiser
espionner	arranger	perturber	alimenter
solliciter	fixer	couper	participer à
demander	avancer	ponctuer	prendre part à
réclamer	reporter	monopoliser	assister à
accorder	remettre (à)	aiguiller	
autoriser	annuler	acheminer	
concéder	supprimer	détourner	
■ Adjectifs			
privé	court	profond	passionnant
formel	à bâtons rompus	fructueux	assourdissant
informel	amical	sérieux	bryant
régulier	ouvert	grave	tumultueux
irrégulier	constructif	vif	inaudible
long	approfondi	animé	
■ Noms			
sujet	thème	objet	objectif

되었다.

그 결과 대칭명사의 각 부류는 각 부류에 속하는 명사와 그 부류 설정의 근거가 되는 적정기능동사 및 적정술어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이원적 비의도성 언술 대칭행위>부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대칭명사의 대상부류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대칭명사의 의미유형에 따른 결합관계를 보다 정밀하고도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적정기능동사 및 적정술어를 근거로 한 대상부류 구축작업이 결국은 연구대상 어휘들의 통사·의미 속성 기술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 이렇게 구축된 대칭명사의 대상부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 불어 술어명사의 대상부류 구축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대칭명사의 대상부류는 궁극적으로는 [사건], [행위], [상태] 등의 술어 대상부류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어 불어 술어명사의 대상부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부류가 불어 어휘 전반에 대한 의미 분류를 지향하는 만큼, 프랑스 파리 13대학의 전산언어학 연구소(LLI)에서는 근 10년에 걸쳐 논항명사의 의미부류 구축을 완료하고 수년 전부터는 술어명사의 의미부류 구축작업에 착수하였다. 불어 [사건] 명사의 의미부류 구축에 관한 연구³⁰⁾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술어명사의 대상부류 구축은 [사건]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위계의 부류인 [행위]나 [상태]의 대상부류가 구축됨으로써만 완료될 수 있다. 현재, [행위] 및 [상태] 부류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주로 해당 부류의 전형적인 하위부류들의 구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³¹⁾ 이로 인해, <대칭행위> 및 <대칭상태> 부류에 대한 대상부류 구축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30) S.-H. Lee (2001).

31) 예컨대, [행위]의 경우 <언술행위> 부류, [상태]의 경우는 <감정> 부류.

상태였다.³²⁾

이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불어 술어명사의 대상부류의 전체적인 균형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건], [행위], [상태] 등 각 대부류 내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혹은 미진하게 다루었던 상당수의 명사들에 대한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술어명사의 대상부류 구축 완료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불·한 술어명사의 대조 연구

불어 대칭명사의 대상부류는 불·한 술어명사의 대조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언어간의 대조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통사·의미적 유형에 따른 대조 방식이 그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술어명사의 통사·의미적 속성에 따른 의미부류라고 할 수 있는 대상부류의 구축은 이같은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재성(1987: 139-171)에서 이미 상세히 논의되었듯이, 한국어 술어명사들 중에도 대칭명사로 분석될 수 있는 명사들이 많이 있다. '대화', '협정', '관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불어 대칭 명사들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기본 문장구조에 나타난다.

- (67) a. A-가 B-와 Npréd Vsup
 b. B-가 A-와 Npréd Vsup
 c. A-와 B-가 Npréd Vsup

32) 물론, 대칭명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술행위>나 <우발사건> 등 특정 부류들의 구축 과정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논의되었다. 그런 까닭에, 대칭명사의 통사·의미 속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칭명사의 부류 구축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68) a. (철수가 영희와 + 영희가 철수와 + 철수와 영희가) 진지한 대화를 했다.
b. (미국이 일본과 + 일본이 미국과 + 미국과 일본이) 자유무역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c. (북한이 미국과 + 미국이 북한과 + 북한과 미국이) 심각한 관계이다.

그런데, 이 명사들도 불어의 대칭명사들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통사행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명사 ‘대화’가 ‘하다’, ‘나누다’ 등의 기능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 ‘협정’은 ‘맺다’, ‘체결하다’ 동사들에 의해 현동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69) a. 철수가 영희와 대화를 (했다 + 나누었다).
b. 미국이 일본과 자유무역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 체결했다).

한편 ‘관계’의 경우는 ‘이다’ 또는 ‘-에 있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 (70) 북한과 미국이 심각한 관계-(이다 + 에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불어 대칭명사의 대상부류는 한국어 대칭명사의 통사·의미 속성 연구나 이들에 대한 대상부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구축된 불어와 한국어의 대칭명사 부류는 두 언어 간의 대조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불어 전자사전 및 불·한 이개어 전자사전의 기초자료 제공

대상부류 이론은 언어의 전산처리 및 자동번역을 위한 언어 기술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논항 대상부류는 술어의 선택제약을 엄밀하고 형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언어 처리에서 관건이 되는 형식적이고 세밀한 다

의어 기술을 가능하게 해 준다. 한편, 술어명사의 대상부류는 각 술어명사가 단문 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기능동사의 유형과 논항의 의미 유형을 밝혀준다. 이러한 이유로 구축이 완료된 대상부류는 전자사전 구축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이는 이 이론을 고안한 Gaston Gross가 이끄는 프랑스 파리 13대학 전산언어연구소(LLI)의 불어 전자사전 구축작업을 통해 입증되었다. 사실, 대상부류 이론에 따라 불어의 대상부류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언어분석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LLI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불어 전자사전과 독일어 및 그리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다른 언어들과의 이개어 전자사전을 구축 중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인 대칭명사의 대상부류는 우선은 LLI 전자사전 구축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축될 한국어 대칭명사와 함께 불·한 대조연구의 모형 개발이나, 더 나아가서 한·불 이개어 전자사전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불·한 번역 및 자동번역

대상부류 이론이 언어의 전산처리를 위해 고안된 만큼, 이에 입각한 언어분석은 전자사전의 구축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언어의 전산처리 및 언어 간의 번역 및 자동번역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불-한 번역 및 자동번역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술어명사 '대화'와 기능동사 '나누다'의 결합 '대화를 나누다'를 불어로 번역하고자 할 때, '나누다'를 유사한 의미의 불어 동사 'distribuer'나 'partager'로 번역하면 비문이 된다. 기능동사는 본래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선택하는 술어명사와 결합하여, 이를 현동화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누다'에 알맞은 불어 번역어는 먼저 한국어 술어명사 '대화'에 대응되는 불어명사를 찾고, 이것이 취하는 기능동사들 중에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구축된 대칭명사의 대상부류는 이렇게 이들 두 언어 간의 번역 또는 자동번역에 필수 불가결한 결정

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동호(2000), 「대상부류 개념의 응용언어학적 활용 방안」, 『프랑스 어문연구』 10, 한국 프랑스어문교육학회, 35-52.
- 박동호(2001), 「한국어 어휘기술 방법론과 어휘교육」,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만규(2002), 「대상부류 이론에서의 다의성」, 『프랑스어문교육』 13,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57-85.
- 신효필(2004),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구조와 어휘기술」, 『언어연구』 40-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655-682.
- 이성현(2001a), 「서술명사 기술을 위한 대상부류 개념의 활용-불어 사건명사의 예」, 『프랑스어문교육』 12,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129-149.
- 이성현(2001b), 「전자사전 구축을 위한 언어기술의 한 방법: 대상부류」, 『언어학』 30호, 한국언어학회, 185-206.
- 이성현(2004), 「전자사전에서의 기능동사 구문 처리 문제」, 『한국사전학』 4, 한국사전학회, 279-322.
- 이성현(2005), 「전자사전 구축과 의미부류 - 세종 명사 의미부류 체계의 예」, 『한국사전학』 5, 한국사전학회, 103-138.
- 홍재성(1987), 『현대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탑 출판사.
- 홍재성(1999), 「기능동사 구문 연구의 한 시각: 어휘론적 접근」, 『인문논총』 41,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 홍재성 외(1998-2005),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 Anscombre, J.-C.(1995), “Morphologie et représentation événementielle: le cas des noms de sentiment et d’attitude”, *Langue française* 105, Paris,

- Larousse, 40-54.
- Cordier, F. et François, J.(2002), *Catégorisation et langage*, Paris, Hermès Science Publications.
- Danlos, L.(1980), *Représentation d'informations linguistiques, constructions N être Prép X*, Thèse de troisième cycle, LADL, Université Paris VII.
- Dubois, J. et Dubois-Charlier, F.(1997), *Les Verbes français*, Paris, Larousse.
- Giry-Schneider, J.(1987), *Les prédicats nominaux en français. Les phrases simples à verbe support*, Genève, Droz.
- Giry-Schneider, J.(1988), "L'interprétation événementielle des phrases en il y a",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XII/1, Amsterdam, John Benjamins B.V., 85-100.
- Giry-Schneider, J.(1994), "Sélection et sémantique: problèmes et Modèles", *Langages* 115, Paris, Larousse, 5-14.
- Gross, G.(1989), *Les constructions converses du français*, Genève, Droz.
- Gross, G.(1992), "Forme d'un dictionnaire électronique", *L'environnement traductionnel*, Sillery/Montréal, Presses de l'Université du Québec, AUPELF- UREF, 255-272.
- Gross, G.(1993), "Trois applications de la notion de verbe support", *L'Information grammaticale* 59, Paris, 16-23.
- Gross, G.(1994a), "Classes d'objets et description des verbes", *Langages* 115, Paris, Larousse, 15-31.
- Gross, G.(1994b), "Un outil pour le FLE: les classes d'objets", *Actes du colloque du FLE* (mai 1992), Lill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169-186.
- Gross, G.(1995a), "Une sémantique nouvelle pour la traduction automatique: les classes d'objets", *La tribune des industries de la langues et de l'information électronique*, n° 17-18-19, Paris, L'Observatoire français et international des industries de la langue, 16-19.
- Gross, G.(1995b), "A propos de la notion humaine",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Supplementa, John Benjamins B. V., Amsterdam.

- Gross, G.(1996), “Prédicats nominaux et compatibilité aspectuelle”, *Langages* 121, Paris, Larousse, 54-72.
- Gross, G.(1998), “Pour une typologie des prédicats nominaux. Prédication, assertion, information”. *Actes du colloque d’Uppsala en linguistique française*, 6-9 juin 1996, Uppsala, 221-230.
- Gross, G.(1999), “La notion d’emploi dans le traitement automatique”. *La pensée et la langue*. Krakow: Wydawnictowo naukowe A P: 24-35.
- Gross, G. et Vives, R.(1986), “Les constructions nominales et l’élaboration d’un lexique- grammaire”, *Langue française* 69, Paris: Larousse, 5-27.
- Gross, M.(1975), *Méthodes en syntaxe*, Paris, Hermann.
- Gross, M.(1981), “Les bases empiriques de la notion de prédicat sémantique”, *Langages*, 63, Paris, Larousse, 7-52.
- Gross, M.(1990a),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du français. Syntaxe de l’adverbe*, Paris, ASSTRIL.
- Gross, M.(1990b), “Sur la notion harrissienne de transformation et son application au français”, *Langages* 99, Paris, Larousse, 39-56.
- Gross, M.(1998), “La fonction sémantique des verbes supports”, *Travaux de linguistique* 39, Bruxelles, Duculot.
- Guillet, A. et Lecl re, C.(1992), *La structure des phrases simples en français- constructions transitives locatives*, Genève, Droz.
- Harris, Z. S.(1976), *Notes du cours de syntaxe*, Paris, Le Seuil.
- Hong, C.-S. and Lee, S.-H. (2003) “Representation of Lexico-Syntactic Information for the Description of Predicate Nouns in the Sejong Electronic Dictionary”, *Korean&/or Corpus Linguistics*, 경진문화사.
- Labelle, J.(1974), *Etude de constructions avec opérateur avoir (nominalisations et extensions)*, Thèse de troisième cycle, LADL, Université Paris VII.
- Lamprou, E. (2005), *Les noms de «réciprocité» en français*, thèse de doctorat, LLI,

Univ. Paris XIII.

- Le Pesant, D.(1997), “Vers une définition plus rigoureuse de la polysémie”, *BULAG* numéro hors série, Besançon, Université Franche-Comté, 255-259.
- Le Pesant, D. et Mathieu-Colas, M.(1998), “Introduction aux classes d'objets”, *Langages* 131, Paris, Larousse, 17-23.
- Leclère, Ch., Laporte, E., Piot, M. et Silberstein, M.(éds), (2004), *Lexique, Syntaxe et Lexique-Grammaire, Linguistic Investigations supplementa* 24, John Benjamins B.V.
- Lee, S.-H.(2001), *Les classes d'objets d'événements. Pour une typologie sémantique des noms prédictifs en français*, Thèse de doctorat, LLI, Université Paris XIII.
- Lee, S.-H.(2003), “Some Problems in Constructing Semantic Classes for Korean Predicate Nouns”, *Language Research* Special Issue, Seoul: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NU, 77-93.
- Meunier, A.(1981), *Nominalisations d'adjectifs par verbes supports*, Thèse de troisième cycle, LADL, Université Paris VII.
- Péchoin, D.(1992), *Thésaurus*, Paris: Larousse
- Vivès, R.(1983), *Avoir, prendre, perdre: construction à verbe support et extensions aspectuelles*, Thèse de troisième cycle, LADL, Université Paris VIII.
- Vivès, R.(1984), “L'aspect dans les constructions nominales prédictives: avoir, prendre, verbe support et extension aspectuelle”,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VIII/1, Amsterdam, John Benjamins B.V., 161-185.
- Vivès, R.(1988), “Lexique-grammaire, nominalisations et paraphrases”, *Lexique*, n° 6, Villeneuve d'Ascq,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pp. 139-156.
- Vivès, R.(1993), “La prédication nominale et l'analyse par verbes supports”, *L'Information grammaticale* 59, Paris, 8-15.
- Vivès, R.(2004), “Les prédicats de DIRE en français: bref sondage sur les préférences des locuteurs”, *Langages* 154, Représentations

330 인문논총 제56집 (2006)

métalinguistiques ordinaires et discours, J.-C. Beacco (éds), Paris:
Larousse, 74-86.

ABSTRACT

Etude sur les propriétés syntactico-sémantiques
des noms 'symétriques' en français
— l'établissement des classes d'objets des noms
'symétriques' —

LEE, Seong-Heon

Notre étude se propose d'établir les classes d'objets des noms 'symétriques' pour mettre en évidence les propriétés syntactico-sémantiques de ces noms.

Nous entendons par noms symétriques des noms prédicatifs comme *guerre*, *accrochage*, *différend*, *dé saccord*, *dispute*, *altercation* qui se caractérisent entre autres par leur apparition dans les constructions suivantes:

- (I) *il y a* Npréd entre A et B
- (II) A Vsup Npréd avec B
- (III) B Vsup Npréd avec A
- (IV) A et B Vsup Npréd

Nous commençons par soulever les problématiques dans la description des noms prédicatifs qui entourent la mise en lumière de la corrélation entre le nom prédicatif et ses supports ainsi que l'hétérogénéité des propriétés syntactico-

sémantiques des noms symétriques, ce qui nécessite la notion de classes d'objets (en sections 1-2).

Ensuite, nous présentons la théorie des classes d'objets et leur application à la description des noms. Les classes d'objets, dont la notion est à l'origine conçue pour mieux délimiter le domaine d'arguments lors de la description des prédicats, renvoient à des ensembles de noms sémantiquement homogènes. Elles se caractérisent avant tout par leur méthode de construction: elles sont établies sur la base de critères syntaxiques appelés opérateurs appropriés, et cela à partir de nouveaux traits, ceux-ci étant préalablement définis selon les mêmes principes, autrement dit selon des critères syntaxiques nommés cette fois-ci opérateurs généraux (en section 3).

Pour finir, nous montrons que la construction des classes d'objets des noms symétriques confirme tout l'intérêt de cette théorie: cette dernière permet de décrire de façon rigoureuse et systématique les noms prédicatifs et de mettre en lumière leurs propriétés syntactico-sémantiques (en section 4).